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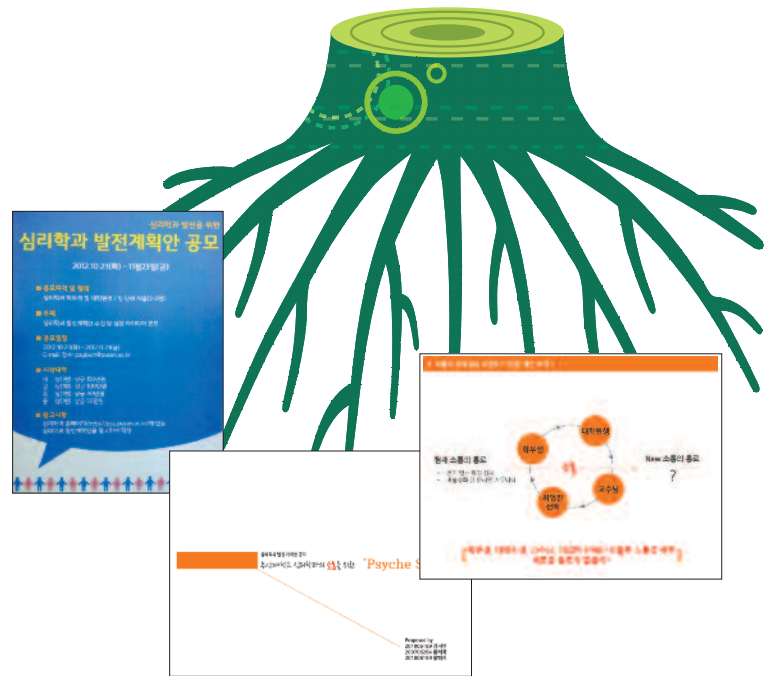
Psyche ; 심리학(Psychology)이라는 말은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주의 이름인 프시케(Psyche)로부터 유래된 말로, 깊은 고난을 거치고 정화된 후에야 진정하고 순수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징이기도 하다.

# 프시케 Story





# 프시케스토리 창간스토리



글  
10학년 정지연 기자

### 심리학과, 귀를 기울이다

지난 2012년 10월, 심리학과 역사상 처음으로 심리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심리학과 발전계획안 및 실천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 3~5명이 한 팀을 이루어 제출된 많은 아이디어들은 현 심리학과에 존재하는 문제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생각들을 담고 있다.

### 발전, 소통(疏通)으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들 중 과내 소식지(프시케스토리) 발간을 제안한 '프시케 스토리' 팀(황제욱, 07, 정지연, 10, 황해지, 10)이 대상을 받았다. 이 아이디어는 최근 대학생들의 개인주의적 분위기와 함께 심리학과 내 소통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내 소식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프시케 스토리'는 동기들, 선후배 뿐 만 아니라 교수님, 대학원-학부생 간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낼 것이라 기대한다.

### 프시케 스토리?!

심리학(Psychology)의 어원인 프시케(psyche)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주 이름으로 갓은 고난을 거치고 정화된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징을 의미한다. 프시케 스토리에는 학과 행사, 취업관련 정보, 수업 정보, 공지 사항은 물론 교수님과과의 대화, 선배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Contents로 구성되어 학과 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리학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프시케스토리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프시케스토리는 학과소식지로 연 2회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소식지는 학과 구성원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증진시켜 학부생 여러분의 학과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학과 구성원 여러분의 요구를 개방적으로 수용해서 보다 내실 있는 소식지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학과 학과장 서수균

프시케스토리는 부산대 심리학과와 정신을 담은 기록 자료로도 가치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부산대 심리학과와 역사를 담은 자료로 보관될 계획인 만큼 제작에 참여한 분들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프시케스토리 발간에 힘써 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학과에 대한 지금의 애정과 관심이 해피바이러스가 되어 널리 전염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프시케 스토리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심리학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과 소식지라는 점에서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소식지가 정기 간행물로서 매 학기마다 발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10년~20년 후에는 심리학과 사무실 책장 한 칸이 프시케 스토리로 채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훗날 학교를 방문했을 때 심리학과 속의 우리들의 흔적을 프시케 스토리에서 찾아 추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심리학과와 역사의 흔적이 될 우리 심리인들의 이야기를 읽고, 마음이 통하는 심리학과 소식지 프시케 스토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심리학과 조교 최원범

먼저 프시케스토리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심리학과 학생으로서, 그리고 프시케스토리의 기자로서 프시케스토리의 창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프시케스토리의 창간 취지에 공감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심리학과 내에서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렇게 프시케스토리가 탄생했다는 점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와 소통, 그리고 교류를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만큼 발전해 나갈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심리학과와 열정으로 프시케스토리가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심리학과 학생회장 함영은

VIVA, 청춘!  
그 아름다운

초여름



【 2월. 그 겨울, 새내기가 온다! 】

2.15 간다게임 미션 수행중  
꽃샘추위가 가지지 않았던 2월 그 겨울, 13학번 새내기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수강신청을 비롯하여 캠퍼스와 많은 선배들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간다게임, 그리고 가족엔티. 선후배 모두 어색한 낱말들을 보냈던 게 엇그제 같네요^^



【 아듀, 2012 】

2.22 전기 학위수여식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있었습니다.



【 5월. 꽃 피는 봄날, 금정산을 다녀오다. 】

5.11 서수균 교수님과 찰떡!  
교수님들과 대학원생, 학부생들이 모두 금정산에 등산을 하고 왔습니다. 건강도 단합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13학번 이남희: 등산은 너무 힘들어!ㅠ.ㅠ  
등산은 너무 힘들었지만 높은 곳에 오르니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더불어 땀 흘린 뒤 먹는 오리고기는 정말 맛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교수님들과 함께 심리학과 전체가 하나되어 노래도 하고 춤도 추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3월. 풋풋한 신입생들의 발칙한 신복엔티! 】

3.22 그들의 발칙한 여장  
올해 신입생 환영회(=신복엔티)에서는 매년 진행해오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여러 게임과 대학원 소개, 초빙강사의 강의 등 좀 더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어진 저녁레크레이션 시간에는 신입생들의 발칙한 장기자랑을 선보였으며, 선배들의 공연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신입생 환영회는 가깝고 경치도 좋은 해운대에서 진행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야호!



【 5월. 사랑이 넘치는 심리 주막 】

5.14 핫플레이스 심리주막!  
1학년 새내기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 주막. 많이 와주셔서 심리 주막이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13학번 백기렬: 늦게까지 손님이 많아 몸은 힘들었지만 와주신 교수님들과 선배들 덕분에 흑자도 많이 나서 보람차고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방법론>을 소개합니다

1학기, 과방에서는 종종 선배들이 둘러 앉아 열띤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심리학과 수업 중 제일 힘들다', '이 수업 하나가 18학점짜리다', '일단 해보면 안다' 등 많은 이야기가 들리는 과목, <연구방법론> 수업의 조별 프로젝트 때문이다. <연구방법론>이라는 과목에 대해 알아보자.

심리학 전공 첫 수업 시간부터 '심리학은 과학이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 심리학을 과학으로 정의하는 것은 심리학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기 때문에, 심리학이 과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과학적인 방법론을 매우 중시한다. <연구방법론> 과목은 심리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교수님의 강의와 조별로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심화·실습 과목이다. 연구방법론은 3학년 1학기 전공필수과목으로 2013학년도에는 김비아 교수님께서 담당하고 있다. 수업의 목표는 (1) 논리를 갖추어 연구물음을 제기하고 (2) 타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설계한 연구를 실제로 수행하여 (3) 적절하게 분석한 결과를 형식을 갖추어 보고하는, 일련의 심리과학적 연구과정을 익히는 것이다.

조별 연구수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대한 변인들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발표하는 조별 연구주제 발표. 이때 연구주제가 겹치거나 주제의 제목 또는 변인에 대한 설명이 애매모호한 경

우 조정한다. 이후 조별로 교수님과 미팅을 한다. 조별 미팅에서는 각 조에서 의문이 있는 부분과 조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준비해 교수님께 직접 어쭙어보는 시간을 약 30분 정도 가졌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 연구계획과 예비실험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는 12-15분 이내로 하며, 선행연구와 구체적인 연구 절차를 중심으로 했다. 주로 내용은 실험 가설은 무엇인지, 변인은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실험은 어떻게 설계하였는지, 어떤 절차로 실험을 진행할 것인지, 또한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지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했다.

그리고 실험스케줄이 확정되고 실험 또한 직접 하였다. 심리학과 1, 2학년이라면 매학기 적어도 한 번은 실험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번 2013년 1학기에도 많은 학생들이 감사하게도 실험에 참가해주었다. 실험의 데이터로 결과를 통계분석하고 해석 한다.

그 후 최종적으로 조별 연구의 결과를 발표한다. 발표의 내용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가설과는 부합하는지,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이 포함된다.

이 수업을 통해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과 연구자로서의 태도에 대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심리학과 전공생으로서 이 수업은 가장 기억에 남을 수업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수강생들, 담당대학원생 선배님들, 그리고 김비아 교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연구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 시연하는 모습

글  
심리학과 3학년  
홍민혜 기자  
people88@pusan.ac.kr

## 대학원 수업이 궁금해!

학부수업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대학원 수업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배울까요? 이번학기 대학원 수업은 고급통계, 임상심리학특론, 임상현장실습, 상담기법 및 기술, 노인심리와 적응, 지식표상과 개념적 사고, 조직행동론, 신경과학 방법론이 개설되었는데요. 이번엔 상담심리전공 대학원 수업인 서수준 교수님의 상담기법 및 기술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상담기법 및 기술]은 수업은 크게 이론, 사례발표, 시연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대학원 상담수업이 학부 수업과 차별화 된 부분은 상담자와 내담자 역할을 직접 시연하고, 교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시연에 임했던 상담자 유재현 선생님과 내담자 최세린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Q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담자 역할을 시연한 소감이 어떠세요?

A 상대가 보는 노란색이 내가 보는 노란색과 같은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나의 경험에 비추어 최대한 그와 같은 색을 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상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똑같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같이 느끼고자 애쓰는 진실된 만남이 좋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 따뜻한 학우들과 함께 함에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심리학과 상담방 석사과정 유재현)

Q 내담자 역할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A 단지 역할연기인줄로만 알고 지원했던 내담자 역할이었는데, 진짜 내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상담에 집중하면서 어느새 시연이라는 것을 잊고 내담자에 몰입했고, 단단해졌다고만 생각했던 내 안의 아픔들이 올라와서 참 힘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들 앞이라는 것도 부끄러웠고, 시연이 끝나고도 몇일은 깊은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동료들의 세심한 격려에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담자의 길이란 평생 이런 과정을 통해 성숙해져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심리학과 상담방 석사과정 최세린)

부담이 많이 되었을 텐데도 용기 내서 시연에 임해주신 두 분의 진솔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려요! 덕분에 지켜보는 수강생들도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또한 시연 후 교수님의 피드백은 감탄 그 자체였는데요! 내담자의 말 속의 마음을 헤아려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 짚어내시는 능력! 기가 막힌 교수님의 노후우를 실제 상담장면을 통해 배웠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론과 사례, 실제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알찬 수업 준비해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전하면서, 강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SK연구?  
성시경?  
신세계?  
그게 뭐야?

## 교수님들의 한 땀, 한 땀 빛나는 연구들 !



심리학과 교수님들 중 신현정 교수님과 정영숙 교수님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속해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사회 기반연구지원사업(SSK: Social Science Korea)'의 지원을 받아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같은 과에서 2개의 연구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뿐이다. 이는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한 사실이 아닐수 없다. 2010년부터 연구 지원에 선정이 되어, 신현정 교수팀은 공동연구자인 이재식 교수님, 김비아 교수님, 송명호 교수님(워싱턴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과 함께 '한국인의 사고패턴의 차별성과 보편성'을 연구 중이며, 정영숙 교수팀은 책임 연구자 정영숙 교수님을 필두

로, 서수균 교수님, 안정신 교수님(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과 함께 '고령사회에 대비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모델의 구축, 활용 및 보급'이라는 연구의제를 가지고 '성숙한 노화 모델의 구성과 적용'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 지원으로 선정이 된 2010년 이후로, 3년간 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다양한 학술 연구들과 세미나, 학술대회, 심포지움 개최 및 참가 등으로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와 위상을 드높였다. 심리학과 학우 여러분들에게 심리학과 SSK팀들의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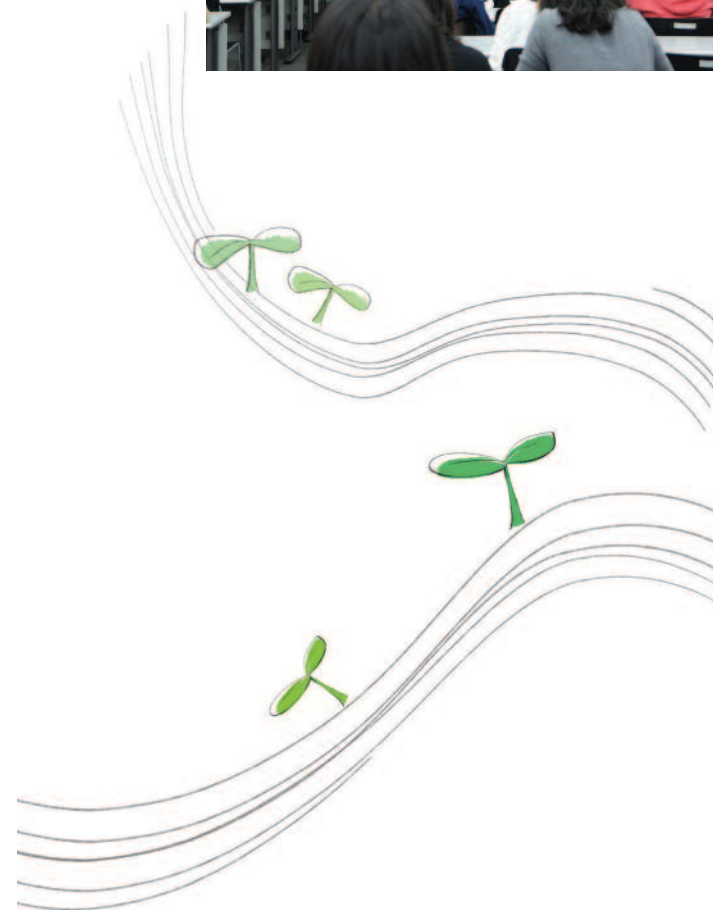


### 행복한 노인들의 삶에 대한 심층면접 분석(2011)

정영숙 교수팀은 우리 문화권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공적 노화의 요소를 탐색하기 위해, 현재 행복한 노인을 찾아 자신의 삶에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나이 들기, 성숙하게 나이 들기, 어른답게 나이 들기 등에 관한 개념을 탐색 하였다. 그 결과, 순리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억지 없이 살기, 욕심 부리지 않기,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순차적으로 살기, 굴곡 없이 살기, 물 흐르듯 살기, 비경쟁적 삶 등으로 나타났다. 순리를 거스르는 삶이란 억지/고집 부리기, 역행, 불수용, 파멸과 불행 자초, 이득 추구, 경쟁 추구라고 보았다. 성숙한 노화란 마음의 안녕과 베풀, 나이에 적절한 태도와 행동, 탐욕 버리기/자족, 건강한, 다음 세대에 부담과 누가 되지 않음, 자기 수용, 순리 대로 살기, 원만한 관계 유지 등으로 나타났으며, 미성숙한 노화란, 고집스러움, 탐욕, 관계 불화, 나쁜 품행, 이기심과 원망, 질병과 빈곤, 경제적 의존, 어른 대접 요구하기, 자녀에 대한 보상적 집착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행복한 노인들의 응답을 통해 잘 나이 들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버리고 베풀고 나이에 걸맞게 순리대로 사는 삶이 소중하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 한국인의 시간 추정 특성(2012)

기다림은 대체로 부정적인 경험이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신현정 교수팀은 Maister(1985)의 제안을 바탕으로 기다림 시간의 주관적 추정에 미치는 영향들(주의분산, 기다려야 하는 이유, 시간 단서)을 검증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객관적 시간에 비해 주관적 시간을 과대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의분산 정도와 이유 제공 여부가 모두 유의한 차이를 초래하였다. 즉, 주의분산이 적어 시간에 주의를 많이 기울일수록 그리고 이유를 제공하지 않을 때 주관적 시간을 더 길게 추정하였다. 또한 시간 흐름의 단서가 부가적으로 주어지면, 주의분산 정도와 이유 제공 여부가 여전히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시간 추정법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명확할수록 그리고 비시간적 정보에 주의를 많이 분산 할수록, 추정하는 주관적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고, 시간 흐름의 단서가 존재할 때 더욱 그러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막연하게 기다리기 보다는 기다림 동안 우리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다른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누군가를 기다리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늦는 이유를 꼭 제시하는 것이, 기다림 때문에 서로가 지치는 상황을 조금은 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학원생들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 논문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다!

## “현재에 충실하라”

심리학과 04학번 신동희 선배님과의 멘토인터뷰

2013년 05월 03일 오전 10시, 성학관 102호에서 대학원생들의 연구발표회가 개최되었다.

6명의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의 연구가 발표 되었고, 신현정 교수님, 홍창희 교수님, 정영숙 교수님, 이재식 교수님, 서수균 교수님, 김비아 교수님, 이동훈 교수님과 50여명의 심리학과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이 참석하였다. 긴장감 속에서 시작 된 연구 발표회는 시간이 지날 수록 교수님들의 격려와 진심어린 조언과 비평이 더해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제 막 대학원 생활을 시작한 신입생부터 자신들의 연구 발표회를 코앞에 남겨둔 과정생들까지 연구방법론 및 심리학의 여러 주제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토의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 연구발표회에 참가했던 석사생 K양은 “통계 수업시간에 배웠던 연구 설계 및 연구 방법들을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이번 연구 발표회를 통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쓰이는지 감을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구발표회를 보면서 선배들의 노고와 준비가 존경스러웠어요”라고 말했다.

논문 종합심사를 앞두고, 연구 발표회를 무사히 성공리에 끝낸 석사 4학기 과정의 김승주 인터뷰해 보았다.



석사 4학기 과정 김승주

**Q 연구발표회를 마친 소감은 어떠한가요?**

**A** 시원섭섭해요. 아쉽기도 하고, 좀 더 준비를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끝나고 나니 뿌듯하기도 해요.

**Q 연구발표회까지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A** 성숙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성이자 인간미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배려에 대해 지도 교수님의 연구와 다른 선행 논문들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려에 대해 연구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고, 교수님과 실험실의 선· 후배들의 도움으로 연구 발표회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배들의 자료도 무척 많은 도움이 되었구요.

**Q 후배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A** 관심할 주제와 연구를 미리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하여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이치일 테니까요. 그리고 선· 후배의 도움이 매우 중요해요. 선· 후배들과 돈독한 우정과 끈끈한 동료애를 잘 쌓으시고, 적극적으로 잘 활용 하세요. 파이팅입니다!

점점 고학년이 되면서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다. 이에 학생들은 뭐라도 해야겠다

싶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학생이 많이 있다.

그런 그들을 위해 현재 GSK에 재직 중인 신동희 선배를 만나 보았다.

**Q 현재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그 직장에서 맡은 일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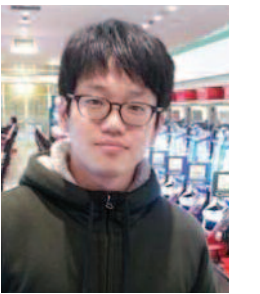
**A**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학우 여러분, 저는 심리학과 04 학번으로 2011년 졸업 후, GSK(GlaxoSmith Kline, 글락소스미스클라인)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GSK는 연 매출 약 60조에 150여 개 국가에 법인을 두고 있는 세계 Top3의 다국적 제약기업으로, 전 인류의 생명연장 및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신약개발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Sales 파트에서 Medical Representative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업무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GSK 의약품과 관련된 의료정보를 전달하여 환자에게 알맞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선배님의 인생의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A** ‘현재에 충실하자’ 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해봤자 변하지도 않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항상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지는 못하지요. 그래도 순간을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합니다. 후회를 줄이고, 걱정을 덜 하는 삶을 살려고 말이죠.

**Q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A** 심리학과 학우 여러분, 절대 자신감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회사에 떨어졌다고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회사가 원하는 능력과 내가 가진 능력이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시고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잉인력 공급으로 무척이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사회로 진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구직활동에서 기운을 내시길 바랍니다. 힘이 될진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반년 간, 39군데 회사를 지원하여, 서류심사에서 20군데 떨어졌고, 면접에서 18곳 떨어졌었습니다. 마지막에 지원했던 1곳이 지금의 회사입니다. 그러니 힘내시길,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멋진 사업 아이템도 환영합니다.



신동희 선배님  
심리학과 04학번  
sindh84@nate.com

글  
심리학과 3학번  
김하민 기자  
point1220@naver.com

# 美人 in

## 미·인·개 미래인력개발원



미인계도 아니고 미인 개! 라니 무슨 소리고~ 하셨죠? 미인개란 다름아닌 미래인력개발원의 줄임말입니다. 종합인력개발원이 올해 들어 미래인력개발원으로 이름을 바꿨다죠. 미래인재개발원 상담부에서는 『각종심리검사, 『심리, 진로상담』 등 자기이해와 적성이해를 통한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가족, 이성, 대인관계의 갈등을 상담원이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부는 전임상담원인 변은주 선생님, 박민아 선생님 두 분과, 교육학과 대학원 인턴선생님 두 분, 심리학과 대학원 인턴선생님 두 분이 상담사로 계십니다. 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대학원생들도 미인개의 상담부에서 전임 상담원, 인턴, 장학조교, 상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인재개발원의 전임 상담원직은 미인개가 종합인력개발원이었을 때부터 상담심리전공 석사를 졸업한 선배님들이 일해 오셨던 역사가 있는 자리기도 하답니다.

현재 미인개의 전임상담원으로 계시는 박민아 선생님이, 미인개 전임직 역사의 현주소인데요. 심리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신 박민아 선생님은 석사 때부터 상담부에서 봉사활동, 인턴, 객원상담일을 하셨고,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서 전임상담원으로 계시다가 올해 미래인재개발원으로 오셨답니다. 자~! 그러면 박민아 선생님을 찾아뵙고, 나누고 온 상담 같은 상담이야기를 들어 보실까요?!

**Q** 필드에서 일하는 상담자로서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A** 가장 두드러지는 건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이다. 주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상담 장면에서는 연습이라는 게 없고, 실제로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학부, 석사과정 때부터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 실제 적용을 해보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Q** 상담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A** 상담 업무 자체의 전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기관에 속해있어서 겪는 어려움도 있다. 미래인력개발원에 속해 있으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상담원이 부족해서 너무 많은 사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Q** 상담일의 보람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보람은 당연히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온 내담자가 변화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회복하고 변화하는 것을 보면 굉장한 보람을 느낀다. 책에서만 보던 상담의 효과를 실제 내담자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보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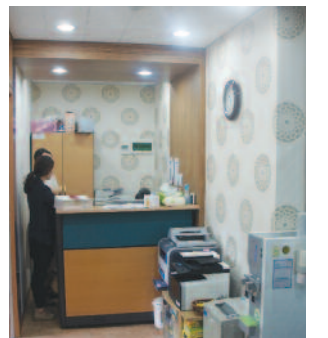
**Q** 대학원 상담방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A** 첫째로, 상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정체감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대학원생들이 수업, 발표, 세미나

준비, 마중물 사래준비 등을 하면서 열심히는 살지만 나는 어떤 색깔을 가진 상담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소홀한 것 같다.

이러한 고민은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은 전공자들끼리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고 경청하는 상담적인 분위기 속에서의 원활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삶 속에서의 실제 관계도 상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타인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상담자 또한 상담이 치유적이라는 경험이 있어야 확신을 갖고 상담을 할 수 있지 이론만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건 한계가 있다. 나또한 일상생활에서의 나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어찌되었든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은 기본적으로 남을 케어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 남을 케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상담을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을 내버려 두고 있다면 되돌아 봐야하는 것 아닐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궁금해 해야 한다. 나는 왜 대학에 들어왔을까? 나는 왜 심리학을 선택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나에게 갖는 것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소중히 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필드에서 일하시는 전문 상담가로서, 또 선배로서 해주신 깨알 같은 말씀들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하나에서 깊이와 확고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찾아가는 것의 의미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고, 후배들이 그 의미를 찾아 진정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고마운 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너무도 감사한 말씀 들려주신 우리 박민아 선생님을 미인개의 美人으로 임명합니다~! 짹짹





# Healing의 심리학

영화 「Reign Over Me(2007)」

##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심리학'은 어느새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물건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 등 심리학은 우리의 삶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로 사람들에게 인식 되었다. 더군다나 요즘은 각박하고 바쁜 현대인의 삶을 문제 삼으면서 불안한 삶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심리 치료를 받는다 하면 주변 시선을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운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나 책, 드라마를 통해서 '힐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화를 통한 'Healing의 심리학'을 소개하고자 한다.

'레인 오버 미'는 트라우마에 대한 공감

과 치유가 뛰어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주는 '힐링시네마'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 찰리 파인먼은 9.11테러로 가족들을 잃은 고통과 아픔을 잊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후 살아가고 있다. 혹여나 기억이 떠오를까 두려운 것이다. 그의 옛 친구 앨런 존슨 역시 외로운 사람이다. 안정된 직업도 있고 경제력도 좋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지만 진정한 모습의 자신을 잃은 채 그저 주변에 맞추어 살아가며 심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 '레인 오버 미'는 감당하지 못할 커다란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삶의 희망을 잃고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와 외롭고,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은 한 남자의 삶의 변화와 치료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두 친구가 만나 사람으로 인한 아픔을 또 다른 사람으로

치유하는 영화로, 보는 이들에게 삶의 아픔과 희망, 따뜻한까지 전달해주는 말 그대로 힐링이 되는 영화이다.

요즘 대학생들은 학점, 스펙, 취업 준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보기엔 열심히 살고, 행복해 보이지만 실상은 숨기고 싶은 트라우마가 있을지도 모르고, 영화 속 두 남자처럼 삶의 변화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바빠질수록 그만큼 허무함도 많이 느끼고 마음 한 구석 텅 빈 공간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고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친구를 필요로 한다. 그럴 때, 친구도 좋지만 간접적이지만 공감을 하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심리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는 영화를 한편을 보면서 치유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



### 2013학년도 2학기 심리학과 학사 및 행사 일정

- 9/2 → 개강
- 9/6 → 개강총회
- 9월 중순 → 심리학과 체육대회
- 9월 말 → 문창제
- 10/21~ → 중간고사
- 11월 → 심리인의 밤
- 12/11~ → 기말고사
- 12/18 → 방학

앞으로 진행될 심리학과 행사 일정입니다. 심리학과 화목과 단합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요~~

#### 프시케스토리 창간호 기자단



상담심리 석사과정 황제욱



발달심리 석사과정 이화진



상담심리 석사과정 오지은



06학번 조민석



09학번 김하민



10학번 정지연



11학번 유푸름



11학번 홍민혜



12학번 함영은



13학번 정진경



**프시케스토리** 창간호

발행일. 2013. 6. 20  
발행처.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전화. 051) 510-1561  
FAX. 051) 581-1457  
홈페이지. psy.pusan.ac.kr  
기획·편집.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제작·인쇄. 부산대학교출판부